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치와 선교를 위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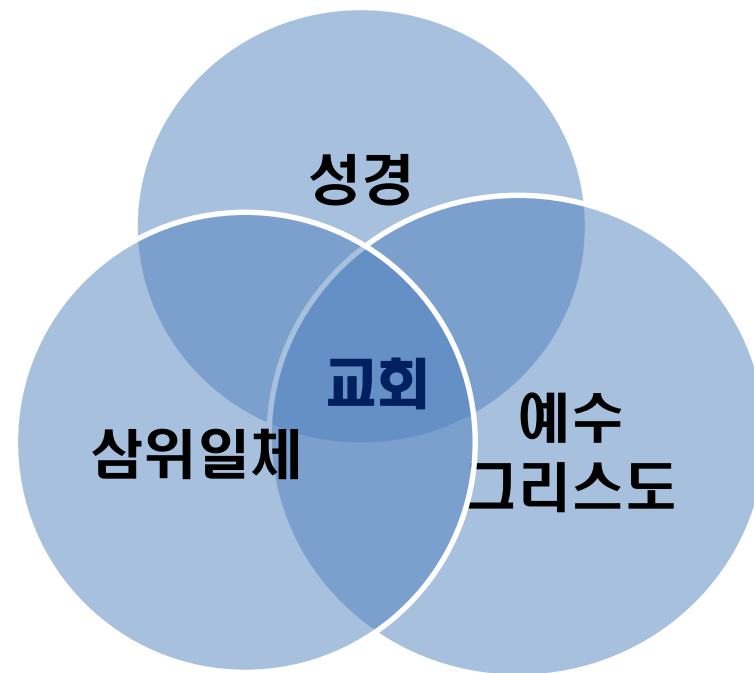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금주섭 (장신대 교수)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란?

-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며, 이에 따라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헌장 1조 1항)
- 성경 - 예수그리스도 - 삼위일체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란?

- 첫째,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사임이다.
- 둘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들의 사임이다.
- 셋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 확정된 삼위일체 교리를 공통의 신앙고백으로 수용하는 교회들의 사임이다.
- 따라서 WCC는 위의 세가지를 인정하는 교회들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 세계교회협의회는 전세계 110여 개국의 5억 6천만의 성도들을 포괄하는 349개 주류 교단의 협의체이다.
- 사도적 신앙을 승계하는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세계의 거의 모든 개신교회(90%)와 정교회 주류교단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장로교회, 미국 감리교회, 캐나다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 호주연합교회, 스코틀랜드장로교회, 웨일즈장로교회, 영국성공회, 독일루터교회 등 우리의 어머니 교회들도 모두 WCC의 핵심 회원교단들이다.
- 나만 옳고 그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율법주의적인 정죄보다는 함께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그간 우리가 진 복음의 빛을 갖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교회협의회 사업

일치 선교 봉사의 영역에서 연합 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1) 선교의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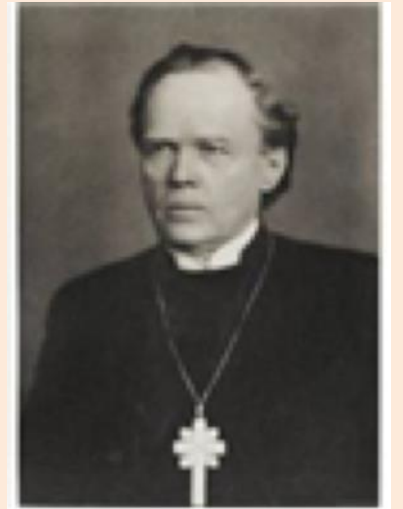
-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
- "선교를 위해 일치하자"
-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MC) 창립
- "선교 안에서 일치"(Unity in Missions) : 분열과 경쟁의 추문 극복
- "일치 안에서 선교"(Mission in Unity) :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의 선교 지향
- 존 모트



세계교회협의회 사업

(2) 봉사의 일치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중 교회 분열
- 1925년 '삶과 봉사'(Life and Work) 조직
- “교리는 분열시키지만, 봉사는 일치시킨다.”
- 나단 죄더볼름



세계교회협의회 사업

(3) 일치의 신학 추구

- 교회론적 일치 추구 없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일치가 어렵다.
- 1927년 '신앙과 직제' 위원회 (Faith and Order, 1927) 창립
- 찰스 브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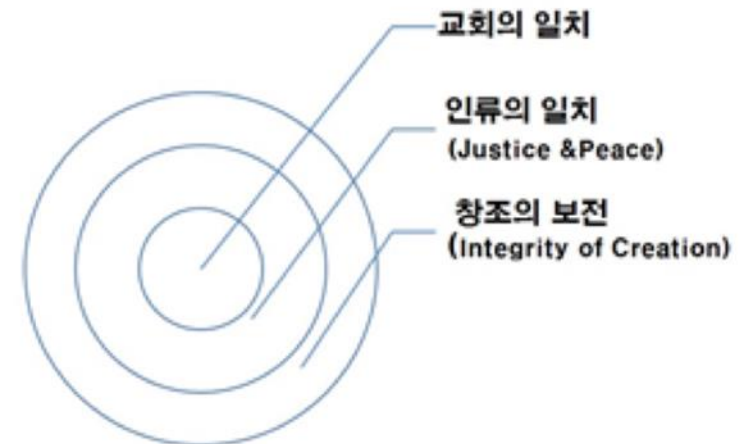


(4) 기독교 교육과 신학교육의 협력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 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교회들의 협의회적 기구이다.
- 에큐메니컬 (Ecumenical)은 헬라어 “오이쿠메네”(ο ἰκ ο υ μ ἐν η)에서 기원하였고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
-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 방향
 - ① 사도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 사이에 일치, 선교, 봉사에 있어 연합과 협력
 - ② 인류의 정의와 평화(Justice and Peace)를 위해 섬기는 일
 - ③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Integrity of Creation)



에큐메니칼 운동의 공 교회성

- 교회의 본성 :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AD 381)

☞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 사도신경

☞ “나는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와 성도의 교제(koinonia)를 믿습니다.”

- 교회 일치추구, 공교회성 존중, 거룩성 유지, 오이쿠메네를 향한 선교 사명 - 공적 복음

하나님 주신 일치 (God-given-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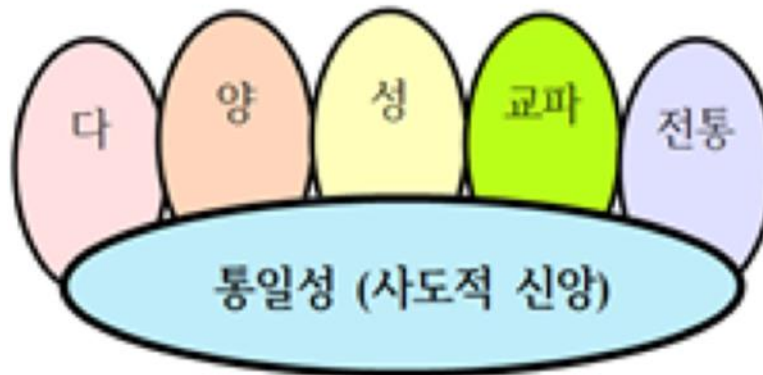
- 교회의 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에 참여
-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성은 같으시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녔다.
- 교회 : 성부의 백성(벰전 2:9), 성자의 몸(고전 12:27), 성령의 전(고전 3:16),

본질상 일치

- 에큐메니컬 운동 :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를 연합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일치를 회복하는 운동

다양성 안의 일치 (unity in diversity)

- 교회 :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경험,
- 그러나 세상의 교회는 교리, 정치, 문화적 차이로 다양하고, 분열의 죄성을 지니고 있다.
- 에큐메니컬 운동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주의적 일치 추구를 반대한다.
-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
-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의 풍요로움을 반영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하나님이 세상(cosmos)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 복음(euangelion)은 세상(oikoumene)를 위해 존재,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의 이분법은 잘못된 오리엔테이션
- 기독교는 본질에서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컬하다.
-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사랑 혹은 정의 실천보다 우선이라는 주장
 - ① 복음이 인간을 구원, 인간적 정의와 사랑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강조 (교리적 자세)
 - ②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부담을 피하고 값싼 은혜(cheap grace)를 택하는 태도
 - ③ 복음 안에 진정한 전도는 삶을 수반한다.
 - ④ 성경적으로 양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하며 통전적이며 동시적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적 발전

- 고대 에큐메니컬 공의회
-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수도 천도 → “콘스탄티노플”
- AD 395년,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수도
- 비잔틴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을 “에큐메니컬 도시”라고 칭함
-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공식명칭을
→ “새로운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 에큐메니칼 총대주교(ecumenical patriarch)”로 칭함
-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의 고대교회 총 5개의 관구(patriarch)로 구성
→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 고대 교회는 이단과 분열에 대처 : 제7차례의 에큐메니컬 공의회 (325~787년 사이)
- “에큐메니컬”은 “보편교회” 혹은 “교회의 일치”를 의미했다.

로마제국 고대교회의 5개의 관구(patriarch)

• 로마



• 콘스탄티노플

• 안디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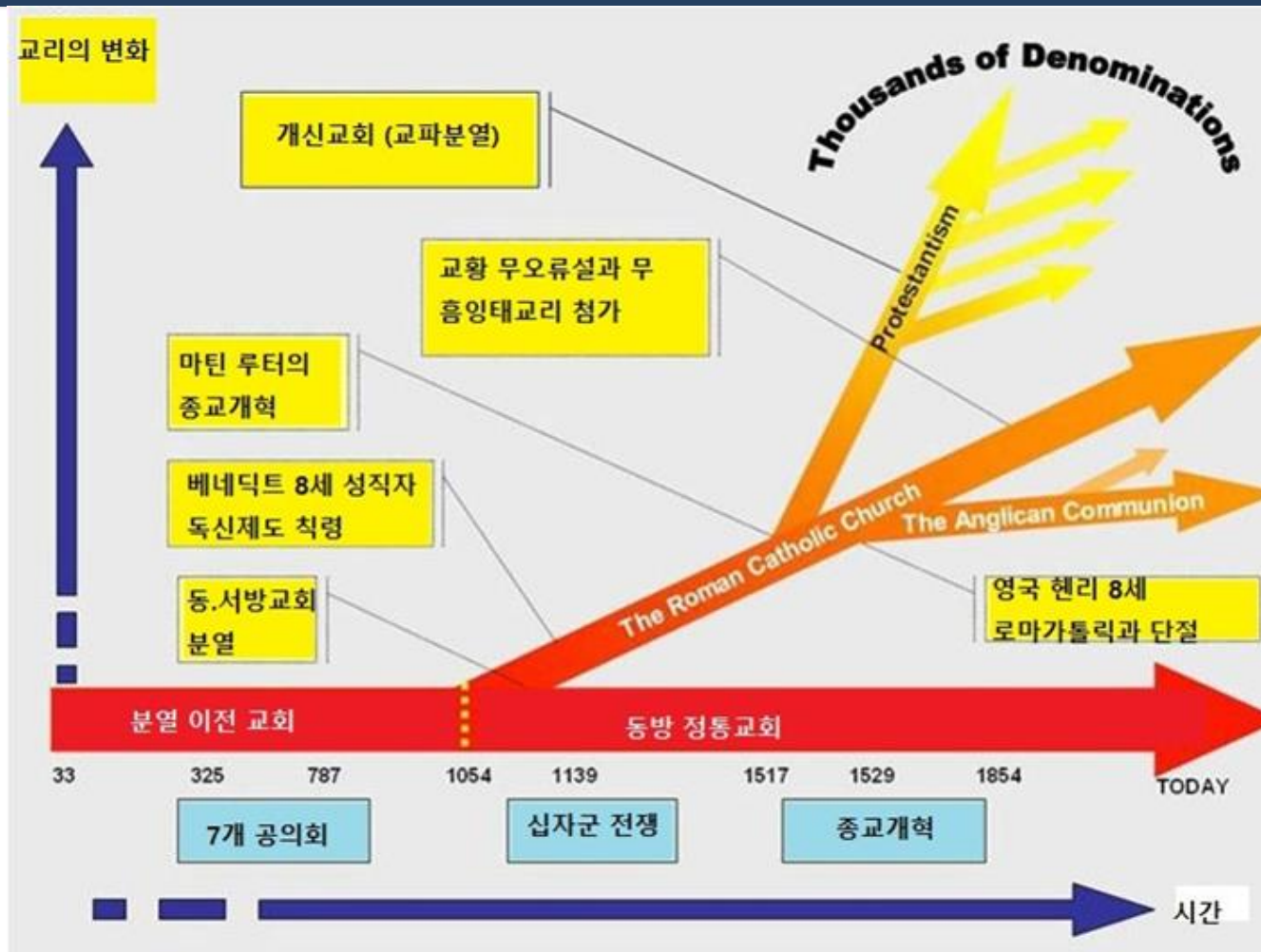
• 예루살렘

• 알렉산드리아

동·서방 교회 분열과 프로테스탄트 분열

- 1054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의 분열
- 신학적 : ‘필리오케’(filioque) 사용과 정교회 지역에 확산
 -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381) :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 서방교회 :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 정치적 : 로마 가톨릭교회가 교회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
- 문화적 : 언어와 전통의 차이
- 16세기 :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성공회, 재세례파 교회 등 분열
- 에큐메니즘 : 교파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의미

동·서방 교회 분열과 프로테스탄트 분열



17세기 경건주의

- 16~17세기 : 로마 가톨릭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확장
- 17세기 : 개신교회는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교파와 교리를 절대화)
- 독일 30년 전쟁(1618-1648) - 유럽 초토화
- 경건주의는 교리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 관계, 회심, 사랑, 선교 강조
- 에큐메니컬 운동에 중요한 길을 마련

18~19세기 복음주의 부흥 운동과 선교

- 18세기 :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계몽주의 시대
- 복음주의 부흥 운동
- 영국 :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 형제와 조지 휘트필드
- 미국 : 조나단 에드워즈
- 국경과 지역을 넘어 영어권 전역으로 확대
- 교파를 넘어서 교회의 인적인 교류
- 4가지 강조 : ① 성경 ② 십자가 속죄 ③ 회심 ④ 행동
- 초교파적, 이단 정죄 중단, 에큐메니컬적 협력 강조

20세기 에큐메니컬 운동

•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창립

-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를 통해 선교의 일치, 봉사의 일치, 신학의 일치 운동이 일어났다.
- 1938년 창립계획 : '삶과 봉사' + '신앙과 직제'의 통합
-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
- 예장과 감리교회는 WCC 창립회원
- IMC는 선교가 교회에 흡수되는 것을 우려 - 1961 인도 뉴델리 제3차 WCC 총회에서 IMC와 WCC는 통합
- IMC는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가 됨
- 20세기 초반 : 선교, 봉사, 신학의 세 가지 에큐메니컬 운동의 합류
- 세계교회협의회(WCC) : 교회 일치의 근거 ☞ 기독교론과 삼위일체 신앙
- 현재 110개국 349개 회원 교회 ☞ 회원 교회 교인 수 5억 5천만 명
- 로마 가톨릭교회는 회원 교회가 아니며,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신학 토론에 참여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한국에서 WCC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 ① 용공론
- ② 단일 교회론
- ③ 선교 모라토리엄
- ④ 게릴라 지원설
- ⑤ 개종 전도 반대론
- ⑥ 종교 다원주의론
- ⑦ 동성애를 지지한다

- 어떤 근거와 역사적 과정에서 기인했는가?

- 타당한 주장인가?

WCC는 용공인가?

- WCC 남침 규정과 유엔군 결성 제안
- WCC의 막대한 한국전쟁구호 지원
- 1954년 삼선 개헌과 사사오입의 비판으로 이승만 정권과 대립 ☞ 최초의 용공설 등장
- 1961년 동구권교회의 WCC가입 ☞ 사회주의권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기독교와 무신론의 대화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용공설은 사라짐

WCC의 단일교회론의 허구성

1950. 7. 15 WCC 중앙위원회, “토론토 성명”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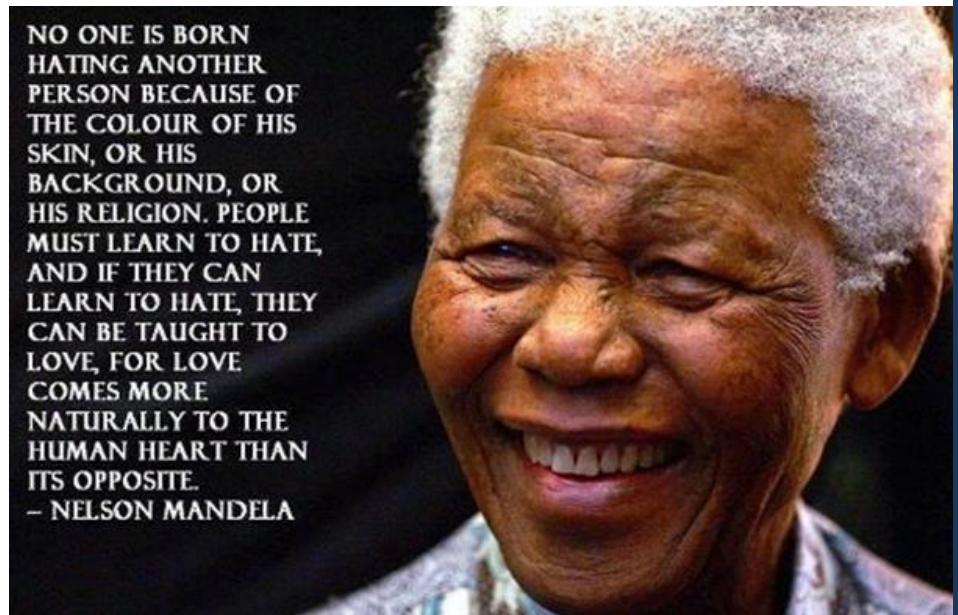
- ① WCC는 단일교회(Super Church)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 ② WCC는 교회 간의 연합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회 간의 연합은 교회의 주도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
(세계교회협의회가 하는 일은) 교회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촉진
- ③ WCC는 특정한 교회 개념에 기초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 ④ WCC 회원이 된다고 해서
그 회원 교회가 자기 교회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⑤ WCC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어떤 특정한 교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 모라토리움

- 1973년 방콕세계선교대회에서 동아프리카장로교회 총무 존 가투 목사가 주장
- 아프리카 교회의 자립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선교사 파송 및 선교 자금지원의 유예를 요청
- 격론 후 모라토리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선교의 동역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함 (CWM 탄생)
- WCC는 선교를 반대한다고 공격함

게릴라 지원설

-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독재 정권이 퍼트림 (게릴라 배후 리스트의 1번은 영국 왕실)
- WCC가 넬슨 만델라의 인종차별 철폐투쟁을 지원
- ICC가 WCC가 교인들의 헌금을
ANC의 무기구입 자금을 지원했다고 공격함
-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백간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최초의 해외 순방지로 WCC를 방문
- 인종차별을 철폐 시킨 WCC의 자랑
- 남아공 독재정권의 자금 지원을 받은 ICC의 치부



개종 전도 반대론

- WCC는 Proselytism 을 비판한다.

Proselytism은 “개종”으로 번역 되지만,

영어의 뜻은 기독교의 한 교파가 다른 교파의 교인들을 빼내가는 전도를 의미한다.

- 역사적으로는 주로 정교회가 강하게 주장했다.

십자군 전쟁시 정교회 교인들을 무력으로 카톨릭으로 개종,

오순절 운동이 정교회를 이단으로 공격하고 개종


이단들의 산 옮기기 전략

- 다른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종교다원주의

- WCC는 종교간의 대화를 지향한다.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 1989년 샌 안토니오 세계선교대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길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을 둘 수 없다.”
- 구약성서의 보편성과 신약성서의 유일성은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율법으로 살던 시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 ②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과
자기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 ③ 기독교의 역사적 구원은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루어질 자연과 만물의 완성은 하나님의 신비
 - ④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와 지역은 양심에 따라 판단

종교다원주의

-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 종교 다원주의적 발상은 그 근거부터 잘못된 것
- 구원의 범위를 적용하는 문제와 종말에 완성되는 자연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 인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신비적 영역
- 정현경 교수의 주장에 대한 캔버라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  “성령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한다. ...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가 종종 다른 종교들의 심오한 영성과 접할 때 기억해야만 한다.” (93항)

대화하는 기독교

- 종교간 대화는 교회가 소수자 종교로서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 생존과 관련된다.
- 타종교의 상대적 진리를 인정,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바울의 성취론적 입장)
-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순 논리로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앙의 열정을 타 종교에 대한 적대감 배타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미성숙

동성애 지지

- 정교회와 아프리카 교회는 WCC가 동성애를 의제로 상정하면 즉각 탈퇴가 예상됨
- 동성애와 관련하여 그 어떤 성명도 발표된 적이 없음

비판에 대하여

- 한국교회 안 WCC에 대한 비판들은 객관적 근거, 역사적 실체와 그 진실성에 대한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
- 대부분이 설득력이 약한 정치적 비난이다.
- WCC 내부에 일부 다원주의 신학자가 있지만 WCC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권화를 우려할 정도로 보수화 되었다.
- WCC를 비판하는 내용들 가운데 1950년대부터 내려오던 부정적인 경험과 이야기들의 연장과 확대 재해석으로 이뤄지는 비판은 불공정, 감정적이며 “가짜뉴스”들도 혼재되어 있다.
- 상대적 반사 이익이나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성숙한 비난은 결국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는 정당한 비판들은 적극 수용하고 변화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질문

- **첫째, 교회론적 질문이다.**

-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세계교회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단들과의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한 전세계 80% 이상의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 그리스도의 교회, 정교회 등의 교단들과 상당수가 가입한 침례교와 오순절 운동을 대표하는 349개 주류 교단들을 과연 한국 보수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는가?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학적인 근거와 권위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등 대표적인 복음주의 연합 운동도 반대하는 극단적 고립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떻게 정통 교회를 표방할 수 있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질문

- **둘째, 분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다.**
- 한국 장로교회는 1959년 통합, 합동간의 분열을 두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입장차이를 신학적 명분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의 분열은 1959년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며 보수적인 교리를 견지하는 등 신학적 차이가 거의 없는 보수 교단 내에서 최근까지 핵분열을 거듭하여 세계교회사에 유래가 없는 200여개의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분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가? 회개해야 할 죄성인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질문

- 셋째, 교회와 국가간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 세계교회협의회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문화 등 여러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현상들을 복음에 입각하여 조명해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에는 때로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예언자적 사명을 다해 왔다. 이를 두고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정치적으로 비난해왔고 용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렇다면 정교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한국 보수주의 기독교의 강한 정치 참여는 어떤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한 질문

- **마지막으로, 선교와 종교간의 대화 문제이다.**
-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세계교회협의회(CWC)의 타종교와의 대화적 관계를 기독교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선교의 의지가 없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베뢰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며(행17:11) 종교간의 평화를 모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과 타종교에 대한 공격적 배타주의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포스트모던시대에 더 효과적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의 보수주의 교단들은 과연 타종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적대적이며 전투적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믿고 있다면 다종교 사회인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전도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반 선교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에 대신하여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① 복음주의 신앙 노선 (성경중심)
- ② 경건한 생활의 연습 (절제 근엄한 청교도 생활윤리)
- ③ 교회연합운동에 협력 (에큐메니칼 정신)
- ④ 사회정의의 구현 (교회의 사회적 양심의 사명)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과 통전적 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다!

**THANK
YOU**